

몇 해 전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살을 빼야 한다"는 '다이어트' 열풍이 몰아칠 때 언론에서는 '종교가 되어버린 다이어트'라는 표현까지 써서 그 분위기를 잘 보여준 적이 있다.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영어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며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서 "혹 우리나라에서 최대 신도를 가진 종교는 영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어난다.

새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어 교육 문제'를 둘러싼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철저 빈곤, 영어 사대주의 등으로 돌리고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런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 북위 38도선 이남에 미군이 주둔하여 모든 것을 오로지 하던 시절, 영어 몇 마디만 할 줄 알면 높은 관료도 될 수 있고 일본인이 남기고 떠난 이른바 적산(敵産)을 공짜로 차지하여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 심지어는 전쟁 중에 미군들에게 '예(yes)'와 '아니 no'를 제대로 쓰지 못해 순박하기 짝이 없는 시골 농민이 '빨갱이' 취급을 받으며 죽어가기 까지 했으니, 그 시절에도 이미 '영어'는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쥔 전지전능한 신(神)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이런 '영어'의 종교화는 지난 1997년 말 이른



불자 세상보기

이병두 칼럼니스트

신흥종교가 되어버린 '영어'

바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래 더욱 빠른 속도로 강화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관철은 회사라고 알려졌던 대기업과 국내 은행들이 줄줄이 외국인 자본가들에게 팔려나가면서, 그동안 회사일 열심히 하면서 착실하게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일찌감치 미국 물을 먹고 오거나 해서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은 오로지 그 한 가지 재주 때문에, 승승장구 출세의 길을 달려가게 된 것이다.

은 내가 바로 "이 사람이, 그래서 상급에 다녀와야지. 옛날에 당나라·명나라에 다녀와야 학자나 학승으로 자리 잡고, 고위 관료나 정치가로 출세할 수 있었듯이 요즈음 세상은 미국 물을 먹고 와야 출세한다 말일세"라며 농담만 진담반으로 우스운 말을 해준 적이 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웃여넘길 일인가.

은 행에 다니는 가까운 친구가 나와 이런저런 세상이 이야기를 하다가 말미에 "그 놈의 영어 때문에..."라며 자조 섞인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들

어를 써서 자기 의사를 정확하고 자신 있게 전달할 줄 알았다. 아마 몽골에서 영어 교육과 공부에 쏟는 노력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적을 것이 분명할 터인데 말이다. 이런 분명 우리의 외국어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 나라가 영어 때문에 시끄럽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실사 떠들거리더라도 그 안에서 교양인의 품격을 느끼게 되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조심을 하며 여유를 하고 자신의 발언 속도를 늦추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불어오는 '영어 열풍'과 '영어의 종교화'는 그런 교양인의 기본 자질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다른 외국어도 그렇지만, 영어를 통해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접하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급 사람들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겠다'는 천박함에서 출발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는 스스로에 대한 모멸(侮蔑)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말과 글,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은 없이 영부사처럼 영어를 말해서 어찌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마지막 질문, 왜 은 국민이 모두 영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혹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특권을 끌고다니는 평등 세상을 꿈꾸어서인가? 미국의 선 몇 번째 주로 편입되기를 기대하는 것인가? '영어=미국=기독교'라는 등식을 위해서인가?



동국대 '로스쿨 탈락' 남은 일은?

"동국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선정에 탈락된 것은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며 유감스럽다. 차후라도 선정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라."

조계종립 동국대가 로스쿨 예비선정 대학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진 1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오영교 총장에게 내린 지시다. 지관 스님은 동국대가 로스쿨 선정 예비명단에서 탈락된 것을 조계종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오영교 총장은 "만해관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마련은 물론 교원확보 등 학교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준비했던 상태였다. 예비인가 선정 배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에서 교무회의를 통해 교육부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교육부용 항의 방론했다. 로스쿨 선정에서 배제된 동국대의 분위기가 '초상집'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동국대는 지난해 소위 '신정아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로스쿨 대학으로 선정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15개 대학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고 16번째에 이름을 올리는 '애석한 탈락'의 주인공이 되었다. 종교사학의 자존심이나 형평성을 두고 볼 때도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속단하는 것도 현명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중요할 수도 있다. 새로운 여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불복을 위한 불복이 아니라 보다 정당한 당위성을 통해 100년 사학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전통사찰 불사 여건 좋아졌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건축물 중·개축 등 불사에 제한을 받아 온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다.

전통사찰의 공익성과 종교행위의 자유를 침해당해 온 사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오래 숙원의 해소가 아닐 수 없다. 또 사찰의 연면적 산출 기준을 건축물대장이 아닌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GB관리대장)'으로 삼게 됐다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이제 전통사찰은 불판을 겪어 했던 법조항이 개정된 만큼, 보다 가치 있는 불사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은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상례지만, 보다 멀리 내다보고 보다 내실 있는 불사를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통사찰은 그 존립 자체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불사의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과 꼭 필요한 불사를 높은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해당 사찰이 불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찰은 불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불사를 추진해야 하고 종단은 심의 기구를 철저히 가동하여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불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하나 버리면 천만가지가 다 쉬게 된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50 내가 없다면 흠도 없다

내지!"하며 호기 있게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대답이 나오질 않았다. 대신 머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최소 8만원은 나오겠네. 어이구! 지난 몇 달간 아내한테 용돈을 타 쓰는 처지다. 하루에 만 원 이상 쓸 행편이 아니었다. 8만원이면 일주일도 더 넘는 용돈인데,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지.

'자기'가 있으면 괴로워

박씨는 이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친구들과 "나 오늘 밥값 낼 행편이 안 돼"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차려져 처음부터 실컷했다고 말했으면 쉬웠을 것이다. 두 시간도 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바른 대로 말한다면 자신이 너무 초라

할 것 같았다. 후회가 되었다. 그냥 얘기할 걸...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끝까지 속이기로 했다. 그래, 8만원 씩 뭐. 이제 친구들 얘기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자 체면에 이게 뭐가 싶었다. 사실 따위는 나이에 강해 퇴출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었다. 울고 싶었다. '내 꼴이 이게 뭐냐' 거짓말이나 해야 되고, 마음이 한참동안 들끓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더라. 그래, 나는 지금 내 생각만 하고 있어. 내 체면만 생각하니까 장교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두려운 거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그 중 하나일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해야 하나. 오직 체면 때문이다. 나라고 항상 잘나

가리는 법 있나? 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내가 없다면 체면이 어디 있다. 박씨의 마음은 점차 편안해졌다. 드디어 말할 용기가 났다.

나 하나를 버린다면

그래, 솔직하게 말하자. 난 몇 달 간 실직했고 지금 돈 쓸 처지가 아니라고. 박씨가 마음속으로 '부처님, 난 불교요. 제가 없다면서요' 하고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0.1초 차이로 친구 00가 먼저 큰소리로 말하는 것 아닌가. "야, 박00. 오늘은 양보해라. 오늘은 내가 낸다!" 귀가 번쩍 띄었다. 그 친구는 내일 좋은 일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자기 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반가우면서도 태연한 척 "그래, 그럼 난 다음에 내지 뭐"하고 대답했다. 어, 이게 어찌 된 거지. 상황이 저절로 바뀌어버렸다. 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상 고백하려는 순간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라는 체면을 버리기로 하자 오히려 곧바로 해결된 것이었다. 박씨가 안심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다시 그의 마음에 힘차게 울리는 말씀이 있었다. "나 하나를 버린다면 천만가지가 다 쉬게 되고 쉬게 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산과 재물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벽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지로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1-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코에이 크림이 항상 통증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건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코에이 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글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관절염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코에이 크림을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 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 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 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가 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곽을 내며 하얀 이로美白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사용해보는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1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